숲·호수 정취 만끽 장성호 수변길 인기

6.7km 구간 공사 마무리
나머지 구간 연말까지 완공
입소문 타고 방문객 북적

장성호를 따라 설치된 1.23km 길이의 나무데크길.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장성군 제공〉

장성호를 따라 거닐며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걷기족들에게 인기다.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수변길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숲·호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입소문이 나고 있다. 특히 장성호는 지난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다.

수변길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길을 조성하겠다며 장성군이 공을 들여왔다.

전체 7.5km 구간 중 현재 6.7km 구간까지 공사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구간도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수변길의 매력은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끼며 걷다보면 낭만적이고 편안한 정취에 빠지게된다. 특히 호숫가를 따라 설치된 1.23km 길이의 나무데크 길은 새벽녘이면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환상적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장성군측은 귀띔했다. 호숫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세운 나무데크에 서면 탁 트인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다.

2시간40분이면 넉넉히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험하지 않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돼 지루할 새가 없다.

소나무와 굴참나무 등 각종 나무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숲속 오솔길 구간은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운이 좋으면 굴참나무 도토리를 먹고사는 다람쥐를 비롯한 산짐승도 만날 수 있다.

내년 4월 장성호를 지나는 출렁다리(길이 156m)가 완성되면 수변길과 장성호를 찾는 지역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 수변길처럼 멋진 트레킹길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소문을 타면서 힐링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간부회의는 난상토론의 장

매주 한번 토론 시간 가져
난제 해결·부서 협업 도움

확대간부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는 장성군 공무원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난상 토론 시간을 마련, 토론 문화 정착에 공을 들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난상토론 시간을 따로 마련해 쟁점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읍·면장을 포함해 과장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난상토론은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에서 탈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쟁점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업별 쟁점 사안이 나오면 회의 참석자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 중에서 최적의 답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두석 군수는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잔디 부산물 불법소각 대책 방안, 농업인단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 회의를 도입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기발한 방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쟁점 과제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지 못했던 데 따른 반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간부회의에서 거론된 토론 주제와 결과도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간부회의 방식을 개선한 게 군정 난제를 해결하고 각 부서끼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예비비 긴급 편성 우박 피해 농가 지원 나서

장성군이 예비비를 긴급 편성,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우박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5월 31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북이면과 북하면 농가에 총 97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시 우박으로 인해 이 일대 농가에서는 수확기를 맞은 오디와 열매솎기가 끝난 사과 등이 피해를 입었고 특산물인 복분자, 떫은감 등 임산물과 밭작물도 잎이 찢어지고 열매가 파손됐다. 군은 피해면적이 106 ha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장성군은 이에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7200여만원을 중앙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한편, 피해 정도가 많지 않아 국비 지원을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 예비비 2500여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장성군은 또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담빛길 디자인 테마거리 조성

담양군이 디자인 테마거리〈조감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담양군은 담빛길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담빛길을 디자인 테마거리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죽녹원과 국수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을 담양읍 중심상가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담빛길 1구간을 '문화가 담긴 문화거리', '담양의 감성과 즐거움이 깃든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또 버스킹 공연존, 포토존, 빈 건물에 아트벽화 등을 그려넣는 시각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도 활용해 관광객들을 불러모은다는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빛길 조성사업은 추억의 거리에 재미와 흥미적 요소를 가미해 원도심에 활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화순군 경관 작물 축제·농촌관광 활용

직불금 지원 육성 나서

화순군이 경관 작물을 농촌 관광에 활용하고 지역축제와도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관광 모델로 개발키로 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중이다.

경관작물로 춘양면을 비롯해 이양·도곡·도암·북·동면 등 5개 면 255농가가 헤어리베치(경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보리(준경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헤어리베치는 76ha, 이탈리안아이그라스, 보리는 181ha 등으로, 군은 경관작물의 경우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경관보전활동비로 ha당 15만을 각각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말 경관지구별로 면적을 배정하고 각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활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경관보조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보다 지원금이 많은데다 조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농가에서 선호한다"며 "지역 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화순교육지원청 청소년 예술공예 체험 프로그램

화순교육지원청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순교육청은 직업인 멘토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술공예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 체험은 화순군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청은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드라이플라워갈란드 체험, 네일강사와 함께하는 네일아트, 석고방향제 만들기, 지갑 만들기, 수제도장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급 매"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함,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